

전북농촌유학, 올해 더 확대한다

도교육청, 1차 46명 배정 이후 추가모집에 19명 신청... 10일 최종 배정 서울 비롯 타지역 유학생 90여명, 진안 조립초·정읍 이평초 등서 등학교

지역별 테마가 있는 '전북농촌유학'이 올해 더욱 확대 추진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농촌유학생 모집 1차에 46명을 배정, 이후 추가모집에 19명이 신청해 오는 10일 최종 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타지역에서 온 유학생 90여 명이 전북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다. 올해 유학생은 진안 조립초 15명, 정읍 이평초 12명, 임실 지사초 10명 등이 배정됐다.

조립초는 진안고원 치유숲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이평초는 '동학농민혁명' 연계 마을교육과정을, 지사초는 치즈 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교육활동 등 지역의 특색을 담은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운영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족체류형 40가구 69명, 유학센터형 17명, 홈스테이형 4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72명, 서울의 지역에서는 18명이 전학을 예정이다.

한편, 전북농촌유학은 지난해 10월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등 4개 지역에서 지사초, 대리초, 동상초, 운주초, 동산초, 조립초를 중심으로 27

명의 유학생을 맞이하며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재학생 92%, 유학생 100%, 유학생 학부모 100%, 교직원 76%가 만족을 표했다. 재학생은 친구 증가, 유학생은 친절함과 다양한 교육활동, 교직원은 학교에 활력이 더해짐을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학생 27명 중 93%인 25명이 연장을 희망했다.

2023년 농촌유학 협력학교는 8개 지역의 18개교다. 참여학교를 보면 정읍 영원초·응동초·이평초, 김제 벽량초, 완주 운주초·운주중·동상초, 진

안 조립초, 장수 산서초, 임실 지사초·대리초·청동초, 순창 인계초·팔덕초·쌍치초·동산초·적성초, 고창 동호초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교육청 지원이 불확실하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연장이나 최종배정을 포기한 경우는 단 1명도 없고, 오히려 추가 신청까지 있었다"면서 "또한 인천, 경기, 충남 등 서울의 지역에서도 18명이 신청했을 만큼 전북농촌유학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특색을 담은 전북농촌유학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전북의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충분히 경험하기를 바라며, 더불어 전북지역 작은학교들의 교육과정에 활력을 불어 넣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는 7일 본교 대강당에서 제46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앞으로의 행복한 삶 위해 정진'

전주비전대 학위수여식... 전문학사 1014·학사 293명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7일 본교 대강당에서 제46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은 전문학사 1,014명·학사 293명 등 모두 1,307명으로, 이날 행사는 수상자와 보직자장, 그리고 학과장관 참석, 간소하게 치러졌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로 중계됐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신학(컴퓨터정보학과 학사학위)·최정녀(전기과 전문학사학위) 학생이 대표로 학위증을 받았으며, 허다영(간호학부)·김미나(치위생과) 학생에게는 각각 이사장상과 총장상이 수여됐다.

한편 학과별 졸업식은 희망하는 학과에 한해 학과장 재량으로 일정을 조율해 진행됐다.

이날 졸업식에 참석한 한모 양은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게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는 없었지만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며 "학과에서 지원해 준 맞춤형 프로그램들도 유익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원하던 직장에 취업하고 학우들과 함께 졸업식장에 참석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정상모 총장은 "앞으로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계속 정진하길 바란다"며 "작년 한해 전주비전대는 많은 성과를 이뤘고 여기 있는 졸업생 여러분들이 바로 그 결실이고 우리 대학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주비전대는 언제나 졸업생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전북 공립 중등 교사 등 임용 최종합격자 발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7일 홈페이지(www.je.go.kr)를 통해 2023학년도 전북 공립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301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일반 297명, 장애 31명 등 총 328명 선발에 제1차 시험에서 462명(일반 458명, 장애 4명)이, 최종 301명(일반 297명, 장애 4명)이 합격했다.

개인별 합격여부와 성적은 7~16일 까지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je.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중등교사는 제1차 시험의 경우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3급 이상인 자 중에서 제1차 시험 성적에 가산점 및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인원의 1.5배수를 뽑고 최종합격자는 제1~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했다.

제1차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시험을, 제2차 시험은 수업실연능력과 교직적 성 심층면접, 체육, 음악, 미술은 실기 평가를 각각 실시했다. 배점은 제1차·제2차 각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는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병행할 예정이며, 연수기간과 수강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2년 연속 한의사 국가시험 100% 합격

우석대 한의학과 졸업예정자 37명 전원 합격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2년 연속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달 13일 시행된 제78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우석대학교 한의학과는 졸업예정자 37명이 전원 합격했다.

제78회 한의사 국



가시험은 전체 823명의 응시자 중 811명이 합격해 98.5%의 합격률을 보였다.

한편 우석대학교 한의학과는 제77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도 100% 합격률을 기록한 바 있다.

송범용 한의과대학장은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국가시험에 대비한 교수님들의 세심한 지도 및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한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사립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설명회

도교육청, 원아 수 50명 이상 유치원 대표·영양사 대상 유치원급식 운영 내실화,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 주 내용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7일 창조미래(별관) 시청각실에서 원아 수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대표 및 영양(교)사 등을 대상으로 '2023 사립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급식 운영의 내실화 △위생·안전관리 강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영양관리 강화 △영양교육·식생활 지도 강화 △식중독 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법 대상 유치원은 연간 급식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열린 급식 운영을 통해 유아 및 학부모에게 영양량 원산지 식단표 등 급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집단급식소 식품관매업' 신고업체 등 적격 업체로부터 식재료 구매 등 식재료 구매 시 유의사항,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및 축산물 이력제도 준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확

용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밖에 유아의 영양관리기준과 신체발달 단계에 적합한 영양관리 강화, 식생활 교육,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 보고·대응 등을 전달했다.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이서기 과장은 "유치원급식의 품질 향상과 유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해 급식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면서 "사립유치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유치원급식의 안정화와 수요자가 만족하는 급식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국립군산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26일까지 6개분야 122개 강좌

국립군산대학교가 2023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원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신청은 이달 1일부터 26일까지 가능하고, 교육기간은 3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15주 동안이다.

모집분야는 교육복지분야, 전문직업 및 금융분야, 교양 및 생활교육분야, 건강체육분야, 어학교육분야, 예술교육분야 등 12개 강좌이다.

2개 이상 교과목 수강생 누적 정규 3학기 이상 등록자, 공무원 및 사립교원은 수강료의 10%를 할인해주며, 누적 정규 5학기 이상 등록자, 65세 이상 고령자, 독립유공자 본인 및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장애인 본인 군산대학교 가족회사 직원, 발전기금 1천만 원 이상 기탁자, 협약기관 직원에게는 수강료의 20%를 할인해 준다.

수강신청 방법은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kunsan.ac.kr/life)에 접속해서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로 방문접수해도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063-469-4917, 4921로 문의 가능하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수강생 수요를 반영해서 수준 높은 강좌를 매년 신설 및 보강하면서 지역사회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의 마중물, 평생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